제3강 세잔 : 감각적 리듬과 사물 I

(0702_01)

▶ 조아생 가스케(1873-1921)와 나눈 세잔의 대화
▶ 메를로-퐁티가 세잔에 대해 한 이야기

◎ 세잔의 회화적인 눈 : 내 속의 자연과 자연 속의 나를 보는 눈

▲ 세잔은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추구했는가.

- 알베르티의 회화론 : 르네상스 회화론의 거장

"회화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회화란 주어진 거리, 주어진 시점, 주어진 조명 밑에서 (시각) 피라미드의 횡단면으로 구성된 평면 위에 선과 색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예술적 재현입니다." (『알베르티의 회화론』 (사계절), 33쪽)

→ 인위적인 기하학적 시각장내의 모습을 화폭에 그대로 옮김. 그러나 실상 거기에는 살아있는 인간이 빠져있다. 인간은 소실점과 대응하는 하나의 중심점에 불과.

- 세잔의 회화론, 예술관
: 자연과 인간이 만나 서로를 통해 근원적으로 나타나는 진상을 포착.

◉ "우리가 해석해야 할 텍스트는 눈에 보이는 자연과 가슴으로 느끼는 자연이라는 두 가지 평행한 것일세. 하나는 저기에(청록의 평원을 가리키며)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여기에(자기의 이마를 두드리며) 있어. 이 둘은 영속성을 가지고 반인반신의 삶, 즉 예술의 삶, 다시 말해 시적인 삶을 살기 위해 혼합되어야 하는 거야." (『세잔과의 대화』(다빈치), 158쪽)

→ 철학적, 문학적 차원을 넘나드는 세잔 예술의 경지. 보이는 사물들의 자연과 보는 자, 즉 느끼는 자 속의 자연이 한 몸으로 결합되는 데서 예술의 삶이 성립한다.

◉ "어찌 보면, 존재하는 것들과 사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태양열이 축적되고 유기화된 태양의 산물이고, 우주의 두뇌가 내뿜는 인(燐)의 발광체일지도 몰라." (같은책, 164쪽)

→ 자연과 인간 결합에 대한 의문의 실마리를 제공. 우주라는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인간을 비롯한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은 그 가지들이다. 즉, 저기 보이는 사물들의 뿌리는 여기 보는 인간이고, 여기 보는 인간의 뿌리는 저기 보이는 사물들이다.
→ 내가 저기 보이는 사물을 본다는 것은 저기 보이는 사물 속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본다는 것은 저기 보이는 사물을 보는 것. "풍경이 내 속에서 자신을 생각한다. 나는 풍경의 의식이다." (메를로-퐁티가 전하는 세잔의 말, 물아일여(物我一如)의 경지.)

(0702_02)

◎ 지평적으로 소통하는 사물들 사이의 끈 : 근원 감각인 색채

www.artnstudy.com

▲ 세잔 그림의 공통적 특징 : 화면 속의 모든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을 반영한다.

- 후설 현상학에서의 지평(地坪 Horizont)의 원리
: 그 어떤 대상이라 할지라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도 없고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할 수도 없다.
: 외적 지평과 내적 지평이 결합되어 사물의 의미를 규정
: 암시적, 선술어적 관계
→ 세잔의 그림은 이러한 철학에 한 발 앞선다.

▲ 세잔의 색채주의

◉ "선들이 여기저기 죄수들처럼 색조들을 가두고 있지. 나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싶어. (...) 그곳에서 풍경화는 날카로운 지성의 미소로 떠다닐 거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섬세함은 바로 우리 정신의 섬세함일세. 그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색은 우리의 두뇌가 우주와 만나는 자리야. 진정한 화가들에게 색이 그토록 드라마틱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 (같은 책, 163쪽)

→ 선들로부터 색들을 해방시키면 사물들의 개별성이 깨어지고 상호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색채의 흐름이 나타난다.

◉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난 감각이 에너지와 색채로 솟아나오는 거야. 그건 일종의 해방감이라고 할 수 있어." (같은 책, 166쪽)
◉ "나는 본다네. 색채가 지리적인 뼈대와 기초공사와 데생 선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을. 그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해내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지." (같은 책, 167쪽)

→ 감각과 존재의 일치. 존재와 일치하는 감각의 근원은 바로 색이다.
⇒ **색을 통한 새로운 시대와 세계의 창조**

◉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려온 것은 풍경이 아니야.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풍경 속엔 온통 사람들이 우글거리잖아. 풍경은 그게 아니야. 불교의 최고의 경지인 열반, 무념무상의 세계, 오직 색만이 존재하는 세계! 그게 바로 풍경이지. 그것들이 모이고 쌓여 여기에 꽃피도록 놔두면 돼." (같은 책, 178쪽)

→ 물아일여의 경지. 불교와 관련지음.

◉ "색깔만으로 사물을 보고, 색깔만으로 포착해내고, 그 색깔만으로 사물들을 구별해내는 화가의 눈이 필요하지." (같은 책, 182쪽)

⇒ 색을 근원적인 존재의 원리이자 흐름으로 봄. 그러나 변화무쌍하므로 고정되어 있기가 어렵다.

(0702_03)

◎ 보이는 사물과 보는 자의 지평적인 소통의 끈 : 근원 감각인 색채

www.artnstudy.com

◉ "마치 내가 끝없이 무한한 색채로 덮여 있는 느낌이야. 바로 이 순간이네. 내가 그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카오스 상태라고나 할까. 나는 내 그림의 배경 앞에 서서 몰아의 경지에 빠지고 마는 거야." (같은 책, 166쪽)

→ 보는 자 역시 색으로 넘쳐나는 경지. 라캉이 말하는 주이상스(jouissance, 향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전 우주적인 경지.

▲ '문명화된 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세잔의 노력

◉ 가스케 : 당신은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풍경 앞에서 그토록 오래 준비하고 명상하는 까닭은 뭔가요?

세잔: 오, 그건 내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야. 우리는 문명화되어 있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고전적인 고민들에 직면해 있는 거지. 나는 그림을 통해 명철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학교라는 제도보다 더 가증스런 일은 무식을 사칭하는 이른바 야만인들이야. 오늘날엔 더 이상 무지해질 수가 없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문명의 이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네. 그것을 부수어야 하네. 문명의 이기는 곧 예술의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지. (...) 이럴 때 나는 이제 막 그림을 시작한 사람처럼 되는 거야. (『세잔과의 대화』, 168-9쪽)

⇒ '인간의 눈을 벗어버린 인간의 눈' : 상투적인 사회 경제적인 코드, 상투적인 상징이나 신화적인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코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투적인 인간의 눈을 탈피. 사물과 인간의 **뿌리**를 '**색채**'라는 근원적인 감각의 흐름으로 느끼고자 함.

◉ "감각이 있다면 관념이나 생각이나 그것을 표현하는 말 따위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다네. 거창한 말들은 더 이상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걸 뜻하거든. 상투성은 예술에 있어서 문둥병과도 같은 거네. 회화에 등장하는 신화들을 한번 보게나. 한번 훑어보기만 해도 그것이 기교의 몰락의 역사였단 걸 알 수 있어. 여신들을 한번 그리기 시작하면 더 이상 여자를 그리는 것이 불가능해지지." (같은 책, 170쪽)

→ 당시 유행하던 상징주의적인 거대한 흐름을 정면으로 반박. 일체의 문명에 의한 자연의 상실을 질타.

⇒ 일체의 사유 이전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감각-사물의 상태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문명화된 눈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순수한 색 감각으로 충만한 눈을 통해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 메를로-퐁티가 말하는 **살(la chair)** : 보는 눈과 보이는 사물이 함께 색 감각으로 충만하게 뒤덮여 있는 상태. 세잔의 회화적 세계관에 존재론적인 기초를 철학적으로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

www.artnstudy.com